‘통합우승’ 타이거즈 ‘황금잔치’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지명타자 최형우 ‘최고령’ 수상
3루수 김도영 288표 중 280표
유격수 박찬호 생애 첫 영광
최다 수상 타이틀 탈환은 불발
포수 김태군 ‘골든포토상’ 영예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왼쪽부터·지명타자), 김태군(골든포토상), 김도영(3루수), 박찬호(유격수)가 지난 13일 2024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끝난 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통합우승’을 이룬 KIA 타이거즈가 ‘황금잔치’를 벌였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4 신한은행 SOL KBO리그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최형우, 박찬호, 김도영이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최형우가 지명타자 수상자로 가장 먼저 단상에 올라 ‘최고령 수상’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어 3루수 김도영이 97.2%의 득표율과 함께 ‘최다 득표자’로 단상에 섰고, 박찬호도 유격수 부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37표(47.6%)를 받은 최형우는 KT 강백호(91표·31.6%)와 두산 김재환(60표·20.8%)을 따돌리고 7번째 골든글러브(지명타자 2회·외야수5회)를 받았다.

최형우는 이날 수상으로 최고령(40세 11개월 27일)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됐다. 앞선 최고령 기록은 이대호(전 롯데)의 40세 5개월 18일이다.

앞서 최형우는 2024시즌 나이를 잊은 활약을 선보이면서 온갖 ‘최고령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7월 올스타전에서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에 등극했고, 7월 9일 LG전에서는 만루상황에서 이상영을 상대로 담장을 넘겨 40세 6개월 23일의 국내 선수 최고령 만루포 기록도 작성했다.

또 최형우는 한국시리즈 무대에 올라 역대 최고령 야수 출장기록과 함께 최고령 안타·타점·홈런 기록도 다시 썼다.

최형우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 올해 정말 완벽했던 한 해를 치른 것 같다. 선수들과 KIA 타이거즈 팬들과 어우러져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생각한다.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데, 야구팬들이 선수들 플레이할 때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4시즌 ‘슈퍼스타’ 김도영은 3루수 부문에서 전체 288표 중 280표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득표율 기록 경신에는 실패했지만 97.2%라는 이번 시상식 최고 득표율을 장식하면서, 프로 첫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김도영은 “입단할 때부터 이 상을 받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워낙 훌륭한 선배들이 3루에 계시니까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스럽고 행복하다”며 “골든글러브를 마지막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년 시즌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 올 한 해 좋았던 것에 절대 안주하지 않고 올해 받은 트로피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많은 관심 가져주신 한국 야구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도영은 “빨리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 있는 말도 남겼다.

박찬호는 치열한 경쟁이 전개됐던 유격수 부문에서 ‘황금장갑’을 차지했다. 박찬호는 154표를 획득하면서 53.5% 득표율을 기록했다. SSG 박성한이 118표(41.0%)로 그 뒤를 이었다.

KIA 내야 사령관으로 첫 우승에 이어 첫 골든글러브를 차지한 박찬호는 “드디어 이 자리에 오르게 됐다. 뛰어나지 않은 재능을 가진 선수로서 오래 걸리기도 했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다”며 “올 시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것 같다. 우승도 했고, 유격수로 받을 수 있는 상들도 모두 받았다. 절대 안주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내년에도 또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다.

또 “어느 구장을 가더라도 원정이라는 느낌이 안 들게 주눅 들지 않게 열성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있어서 좋은 성적 내고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KIA의 최형우, 박찬호, 김도영과 함께 NC 하트(투수), 삼성 강민호(포수), LG 오스틴(1루수), 키움 김혜성(2루수), 삼성 구자욱·롯데 레이예스·KT 로하스(이상 외야수)가 골든글러브 주인공이 됐다.

최형우와 강민호는 역대 7번째 수상이다.

김혜성은 역대 14번째 4시즌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됐다. 1986~1988시즌 김성래(당시 삼성) 이후 36년 만에 기록된 3시즌 연속 2루수 부문 수상이기도 하다.

또 2019시즌 두산 린드블럼(투수), 키움 샌즈·KT 로하스(이상 외야수), 두산 페르난데스(지명타자)에 이어 가장 많은 4명의 외국인 선수가 수상에 성공했다.

KIA 포수 김태군과 삼성 투수 원태인은 각각 골든포토상과 페어플레이상 주인공으로 시상식에 참가했다.

한편 KIA는 가장 많은 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역대 72개의 ‘황금장갑’을 수집했지만, ‘최다 수상 타이틀’ 탈환에는 실패했다. 삼성이 2개의 골든글러브를 추가하면서 73개로 1위를 지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굿바이! 소크라테스

KIA, 메이저리그 3년 연속 20홈런 위즈덤 영입

KIA 타이거즈가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작별하고 패트릭 위즈덤〈사진〉으로 ‘한 방’을 더한다.

KIA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88개의 홈런포를 기록한 내야수 패트릭 위즈덤(33·우투우타)을 새 외국인 타자로 영입할 전망이다.

위즈덤은 MLB 통산 455경기에서 출전해 3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날리기도 한 ‘파워 히터’로 KIA 입단에 메디컬 테스트만 남겨두고 있다.

KIA는 새 외국인 타자 영입을 앞두면서 3년을 함께 했던 소크라테스와의 동행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크라테스는 올 시즌 140경기에 나와 0.310의 타율을 기록했고, 26홈런 97타점을 수확하면서 ‘우승 멤버’로 활약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올 시즌에도 슬로우스타터의 모습으로 초반 고전을 했고, KIA 입장에서는 ‘코너 강타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만큼 변화를 준비했다.

2018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통해 빅리그에 데뷔한 위즈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카고 컵스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힘을 보여줬다.

2021년 106경기에 나와 타율 0.231, 28홈런 61타점을 기록한 그는 2022년에는 0.207, 25홈런, 66타점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2023년에는 타율 0.205, 23홈런, 46타점의 기록을 남겼다.

타율은 떨어지지만 빅리그에서 3년 연속 20홈런을 장식한 파워가 눈에 띈다.

위즈덤은 올 시즌에는 75경기에 나와 타율 0.171, 8홈런, 23타점에 그치면서 시카고 컵스에서 방출됐다. MBL에서 새 팀을 찾지 못한 위즈덤은 지난달 멕시코 태평양 리그 소속의 나랑헤로스데 에르모시요와 계약했다.

나랑헤로스는 최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패트릭 위즈덤이 한국 야구 구단과 계약하면서 윈터리그 참가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마인츠 이재성 ‘코리안 더비’ 완승

김민재 수비 뚫고 뮌헨전 멀티골 폭발…2-1 승리 ‘원맨쇼’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의 공격수 이재성(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4일(현지시간) 열린 뮌헨과의 2024-2025 분데스리가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김민재(맨 오른쪽)를 뚫고 선제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의 공격수 이재성이 ‘철기둥’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펼친 ‘코리안 더비’서 멀티골을 폭발하며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달성의 고공비행을 이어갔다.

마인츠는 14일(현지시간) 열린 뮌헨과의 2024-2025 분데스리가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혼자서 2골을 몰아친 이재성을 앞세워 2-1 승리를 따냈다.

‘강호’ 뮌헨을 잡은 마인츠는 승점 22(6승 4무 4패)를 쌓아 6위로 올라선 가운데 ‘선두’ 뮌헨은 정규리그 개막 무패 행진을 13경기에서 마감하며 첫 패배(승점 33·10승 3무 1패)의 고배를 마셨다.

마인츠의 이재성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김민재가 중앙 수비수로 버틴 뮌헨을 상대로 전반 41분과 후반 15분 잇달아 득점포를 가동, 리그 4, 5호 골의 기쁨을 맛보며 정규리그 득점 공동 13위에 랭크됐다.

이날 득점으로 이재성은 정규리그 10~14라운드에서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4골 2도움)를 달성, 이번 시즌 공격포인트를 5골 3도움(컵대회 1도움 포함)으로 늘렸다.

지난 8월 DFB 포칼 1라운드에서 도움으로 시즌 첫 공격포인트를 따낸 이재성은 베르더 브레멘과 정규리그 3라운드에서 마수걸이 득점포를 가동한 뒤 10라운드 도르트문트전과 11라운드 홀슈타인 킬전에서 리그 2~3호 골을 꽂았고, 12라운드 호펜하임전과 13라운드 볼프스부르크전에서 리그 1~2호(시즌 2~3호 도움) 도움을 잇달아 작성하더니 이날 뮌헨을 맞아 리그 4~5호 골을 폭발했다.

앞서 이재성은 지난 10월 DFB 포칼 2라운드 뮌헨전에 결장해 김민재와의 맞대결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날 이재성과 김민재가 모두 풀타임 출전하면서 둘의 이번 시즌 첫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더불어 마인츠의 홍현석도 후반 39분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아 한국 선수 3명이 후반 막판 그라운드에서 경쟁하는 장면도 연출 됐다.

이날 2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이재성의 발끝은 전반전부터 뜨거웠다.

이재성은 전반 13분 역습 상황에서 자기 진영 중원에서 김민재가 헤더로 떨어뜨린 볼을 잡아 전방으로 쇄도하는 요나탄 부르카르트를 향해 정확한 전진 패스를 시도했다. 볼을 이어받아 단독 드리블에 나선 부르카르트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을 때린 게 골대를 살짝 벗어나면서 이재성의 도움은 무산됐다.

하지만 이재성은 전반 41분 귀중한 선제골을 터트리며 환호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날아온 크로스를 아르민도 지프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잡아 시도한 왼발 슈팅이 마이클 올리세의 몸에 맞고 굴절되자, 이재성이 재빨리 쇄도해 김민재의 압박을 이겨내고 왼발로 밀어 넣었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마인츠는 후반 15분 만 이재성의 추가골이 폭발하며 승기를 잡았다. 이 득점은 이날 경기의 결승골이 됐다.

이재성은 지프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투입한 땅볼 크로스를 골 지역 정면에서 잡아 왼발 터닝 슈팅으로 멀티골을 완성하며 스코어를 2-0으로 벌렸다. 이재성이 이번 시즌 첫 멀티골 순간이었다.

반격에 나선 뮌헨은 42분 리로이 자네가 추격골을 터트렸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연합뉴스